

ISSUE BRIEFING

2019. 09.11  
Vol. 207

# 2019

# ISSUE BRIEFING

연구진

나정호\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

## CONTENTS

- 1. 이슈의 배경과 목적 ..... 02
- 2. 한중카페리가 군산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 ..... 02
- 3.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운영 기대 효과 ..... 07
- 4.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응 전략 ..... 08

## 1. 이슈의 배경과 목적

- 군산항은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1월 한중해운회담 결과, 전라북도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연결하는 한중카페리 노선의 주 6항차 증편이 확정되었고, 석도국제훼리(주)는 뉴시다오펠호(New Shidao Pearl)를 신건조하여 두 척의 선박으로 2018년 4월부터 주 6항차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카페리(Cargo-Ferry)는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하는 특수서비스 형태로 물류 측면에서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여객 측면에서 한중 관광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특히, 2019년 7월 신건조한 군산펠호(Gunsan Pearl)를 주 6항차 운항에 투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건을 갖추어 여객과 물동량 유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음
- 이 글에서는 주 6항차로 증편된 군산항-석도항 간 한중카페리를 활용하여 물동량을 증대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 2. 한중카페리가 군산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

### 2-1. 군산항 對중국 물동량 창출에 기여

- 현재 대부분의 서해안권역 거점 항만에서 중국 동안을 연결하는 한중카페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8월 현재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카페리 항로 10개,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항로 5개,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항로 1개 등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해운회담 결과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항로 1개가 신설되었음
  - 카페리는 비교적 단거리 해상운송 수단으로 일부 對중국 물류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항로별 신건조선 투입으로 물류 뿐 아니라 한-중 여객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



자료 : 한중카페리협회

〈그림〉 한중 카페리 운영현황(2018년 기준)

- 최근 5년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군산-석도 간 한중카페리 단일항로에서 약 61%(180,288TEU)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55%(44,056TEU)가 군산-석도 카페리선박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유일한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표〉 최근 5년간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규모

년도	6부두		카페리물류		합계(TEU)
	TEU	%	TEU	%	
2014	15,175	32	32,791	68	47,966
2015	14,579	33	29,970	67	44,561
2016	20,309	36	36,255	64	56,564
2017	31,290	46	37,216	54	68,506
2018	36,284	45	44,056	55	80,340
합계	117,637	39	180,288	61	297,937

자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자료 : 석도국제해리(주) 홈페이지

<그림> 한·중·일 랜드브릿지 서비스 루트

## 2-2. 물류분야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

-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2018년 1월 한중해운회담 결과, 군산항과 석도항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기존 주 3항차에서 주 6항차로 증편되었고, 2018년 4월 이후 주 6항차 데일리 운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종목적지가 전라북도인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긴급한 경우 카페리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기선항로(주 1~2항차)를 이용하여 수송되고 있음
- 주 6항차 데일리 서비스는 군산항 물동량 증대를 위하여 새롭게 발굴한 “한·중·일 랜드브릿지(Land-Bridge)\*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랜드브릿지(Land-Bridge)는 해륙복합일관운송으로 해상-육상-해상으로 이어지는 운송구간 중 중간구간인 육로운송구간을 의미한다(방희석, 2013). 최종 목적지가 전라북도(군산)가 아닌 화물을 유치하는 서비스로, 현재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해상 운송된 화물을 부산항까지 육상 운송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한·중·일 랜드브릿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화물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평가된다.

- **(신규 물동량 창출 기회1 : 신선물류)** 주 6항차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물동량 창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함

- 주 6항차 데일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수요, 여객수요 등 항후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 데일리 서비스 기반에서 산동성 일부 지역에 대한 익일배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물류 경로가 없는 전북도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예: 농축수산물, 신선식품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에 군산항에서 선적되면, 목요일 오전 석도항에 도착하여 오후에는 최종 배송지까지 도착하는 경로가 가능함

#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

- (신규 물동량 창출 기회2: 전자상거래물류) 개별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역직구 수요는 대부분 항공물류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 진출이 불가능한 시장임
  - 전 세계를 범위로 하는 전자상거래수요는 항공물류서비스로 충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역 범위를 한정하여 중국 산둥성 지역의 전자상거래물류 수요는 주 6항차 데일리 카페리물류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음
  - 항공물류가 지역 간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지만 대개 익일 오전 세관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 통관이 이루어지므로, 익일 오전 석도항 통관이 가능하다는 여건을 고려하면 산둥성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산둥성은 2016년 기준 인구가 9,947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 범위를 산둥성 일부 지역에 한정해도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3. 여객분야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

- 카페리(Cargo-Ferry)는 물류 관점에서 화물운송이 우선되다보니, 여객 편의시설,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보다 보따리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따이공, 代工)이 다수이며, 군산-석도 간 항로도 상황은 유사함
- 최근 5년간 카페리를 이용하여 전북도로 입국 또는 출국한 여객은 총 854,257명(입항 424,787명, 출항 429,470명)이며, 편도 운항 기준으로 500명 내외의 여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주 3항차 운항이 되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평균적으로 매년 151,141명의 여객이 이용했으며, 1항차 당 약 969명(입항 490명, 출항 498명) 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됨
  - 2018년의 경우 1월~3월은 주 3항차, 4월~12월까지 주 6항차를 운항한 기준으로 1항차 당 약 943명(입항 472명, 출항 471명) 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됨

〈표〉 최근 5년간 한중카페리 여객통계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계	131,978	132,300	168,247	184,037	237,695	854,257
입항	64,617	66,012	83,432	91,688	119,038	424,787
출항	67,361	66,288	84,815	92,349	118,657	429,470

주 : 2018년 4월 4일부터 주 6항차 운항 서비스가 제공됨  
 자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2척의 신건조 선박\*이 각각 2018년 4월, 2019년 7월에 서비스 항로에 투입됨에 따라 소상공인 중심의 상업수요 뿐 아니라 적극적인 여객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존 카페리선박은 신형 선박보다 선령이 높은 선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물류 서비스 중심



으로 운영하다 보니 편의시설, 객실 등 여건이 열악하였으나 신형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쾌적한 여행 여건이 조성됨

\* 2척의 신건조 선박은 동일한 설계도에 의해 건조된 자매선(sistership)으로, 정식명칭은 M/V NEW SHIDAO PEARL, M/V GUNSAN PEARL이다. 최대 1,200명의 승객과 218TEU의 화물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으며, 20노트의 수송서비스를 제공

- 일반적인 여행수요를 고려하면 항공으로 1~2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12시간이 소요되는 카페리선을 이용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넓은 공간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객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새로운 기회 창출이 가능함

\* 국내동호회 단체 여행객이 “뉴시다오펄호”를 이용하여 단체 여행을 한 사례가 있다. 승선시간인 오후 4시까지 군산시내 관광을 하고, 승선 후 개별 시간을 보내다 저녁식사 이후 동호회 자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식당공간을 제공하였다. 중국 석도 도착 후 현지 관광을 즐기고 현지 호텔 연회장에서 동호회 프로그램 진행하였고, 귀국 항편에서도 동일하게 자체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관련 분야 동호회에서 2018년에 총 3회 군산-석도 카페리선을 이용하였다.



자료 : 석도국제훼리(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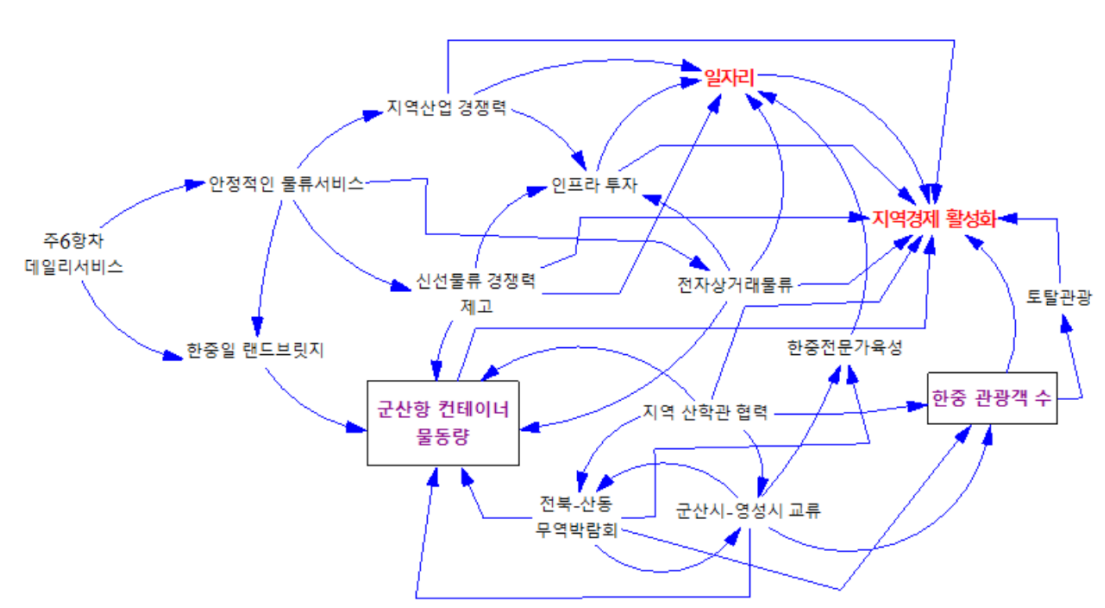
〈그림〉 동호회 카페리 프로그램 행사사진

- **(전북도 유일의 해외여행 경로)** 과거 노후선박이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에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신건조 선박 2척이 투입됨에 따라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북도민의 중국 관광 루트로 활용할 경우 향후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신항만 크루즈 부두 건설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크루즈관광 체험의 기회)** 크루즈관광은 대형선박을 타고 관광하는 개념보다는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 등 이동 중 선내 여행과 숙박을 즐기고, 도착지 현지 관광을 하는 형태임
  - 대부분 크루즈선박은 선내 여행, 휴식을 위한 수영장, 사우나, 노래방, 식당, 카페, 펍 등의 편의시설과 객실을 완비하고 있음
  - 뉴시다오펄호와 군산펄호의 경우 대형크루즈선박의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식당, 카페, 펍, 게임룸, 선내면세점, 객실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도민의 크루즈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3.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운영 기대 효과

### 3-1.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운영 기대 효과

- 군산항-석도항 간 주 6항차 데일리 카페리 서비스는 물류와 여객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로 기대효과를 표현할 수 있음



〈그림〉 인과지도 : 한중카페리 군산항 활성화 기대효과

- 물류에서는 주 6항차 데일리 서비스로 안정성을 높여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데일리 서비스로 인하여 신선물류, 전자상거래물류와 같이 신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신선물류, 전자상거래물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냉장냉동창고, 특송화물장치장 등) 투자가 요구되며, 관련 투자가 실현될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이 현실화되어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무역박람회, 지자체 교류 등의 형태로 지역 산·학·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경우 군산항 물동량과 한·중 관광객 수 증대에 기여하여, 전북도의 토탈관광 정책 성과 향상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3-2. 새로운 기회를 누리기 위한 적기 대응의 필요성

- 대부분 한중 카페리 항로는 주 3항차 운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산-석도 구간이 유일하게 2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주 6항차 데일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류와 여객 분야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더불어 한 항차 운항에 투입되는 고정비는 운영사 입장의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적정 규모의 안정적인 물류와 여객 수요를 창출해내지 못하면 위에 언급한 기회 요소를 상실할 수 있음
-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역할은 선사가 담당하지만, 안정적인 물류와 여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전북도, 군산시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4.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응 전략



〈그림〉 전라북도·군산시 대응전략

#### 4-1. 카페리물류 지원 인프라 조성 : 민간투자유치, 인·허가 관련 제도적 지원

- 한중 카페리 데일리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새롭게 발굴된 신선물류(농축수산물, 식품 등), 전자



#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

상거래물류(한중직구, 역직구 등)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신선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냉동냉장창고 등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상거래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이 필요함
- 물류 인프라는 민간업체의 투자영역이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민간투자유치 노력, 인·허가 관련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료 : 유진초저온 홈페이지  
냉동·냉장창고 조감도\*



자료 :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전자상거래물류단지 조감도\*\*

## 〈그림〉 카페리 물류 지원 인프라

\* 냉동냉장창고는 평택항 배후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오성산업단지에 입주하였으며 2019년 3월 준공식을 갖고 현재 유통물류, 유통 판매, 무역, 제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물류단지는 한중카페리항로를 10개 보유한 인천항의 배후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 중에 있으며, 물류센터, 보관창고 등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2. 한·중 관광 활성화 유도

- **(중국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최근 관광 목적으로 한중카페리선을 통해 전북도에 입항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북도 관광을 즐기고, 재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시설 확충)** 주 6항차 서비스 제공으로 매일 500명~1,000명의 대규모 여행객이 입국하는데,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4명으로 입국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1인당 1분 남짓의 출입국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입국심사는 향후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공공기관 공식워크숍 권장)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공기관의 숙박이 포함된 행사 추진 시 한중카페리여행을 고려할 수 있음
- 대부분 숙박이 포함된 행사의 경우 공식행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결합하는데, 공식행사를 이동 중 선상에서 진행하고, 문화체험 후 귀국하는 선상에서 소감을 나누는 방식은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이 가능함
- (전북도 소재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전북도 소재 대학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중 한중카페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음
- 물류, 관광, 외식, 중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카페리선은 교육·훈련·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에서 양성한 인력이 지역 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서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타트업 창업까지 유도할 수 있음
  - ※ 유사사례: 싱가포르 폴리테크닉(Singapore Polytechnic)에서는 매년 3박 4일의 일정으로 "Maritime Experiential Learning Camp"를 크루즈선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반 크루즈여행객들이 현지 관광을 즐길 때 전공분야별 크루즈선 내를 견학하고, 식사 시간 이외의 식당공간을 활용하여 연사특강, 참가자 간 브레인스토밍 등을 진행한다. 하선하는 날 브레인스토밍 결과 발표회, 캠프참가소감 등을 나누고, 참가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를 한다. MEL 캠프 공식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크루즈선내 편의시설 이용, 공연관람 등을 할 수 있다.
- (전북도 소재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대부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은 타 지역을 목적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동과 여행지 관람, 식사, 숙박, 친목도모 행사 등이 이루어짐
- 3박 4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면, 2박이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선상에서 친목도모 행사를 추진하여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경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중국'을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음
-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신항만 활성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신항만 크루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관광수요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국제공항 국제항로개설, 새만금신항만 크루즈 부두 항로 개설이 순차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유일한 국제여객항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3. 장기적·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 산·학·관 협력

- (전북도-산동성 협의회 구성) 전북도와 산동성이 주도하여 양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 지역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한중카페리, 군산항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

함(전북연구원, 2018)

- 전북도와 산동성이 주도하여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기관이 주도하여 지역협력발전모델을 구상한 후, 정기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컨퍼런스 기간에 양 지역 기업의 무역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입계약체결 기회를 제공함
  - 정기적인 컨퍼런스, 무역박람회 등 참가자가 한중카페리를 통해 이동할 경우 상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군산시-영성시 교류협의회 구성)** 군산항(군산시)과 석도항(영성시)을 창구로 군산시와 영성시의 기업, 학교(대학, 초·중·고등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양 지역 간 교류, 발전을 주도함
-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 간 교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결국 시민 교류로 연계될 수 있음

### <참고문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방희석. 2013. 국제운송론. 박영사.

석도국제훼리주식회사 홈페이지

유진초저온 홈페이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전북연구원. 2018. 군산항 물동량 증대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2019. 09.11 **Vol. 207**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